

News & News

노인의치보철단가 대폭 오른다 전부의치 15만원 인상, 부분의치 24만원 인상

내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전부의치 지원단가가 현재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15만원(25%)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4만원(25.3%)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전부의치의 사업량은 줄어드는 대신 부분의치의 사업량은 늘어나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 관리비가 신규로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7억원이 책정되게 됐다.

최근 확정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편성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결과 지난 7월 초 책정됐던 예산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등이 조정되고 민간치과병·의원의 치아홈메우기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올해 12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박영섭) 및 복지부 생활위생과(과장 유수생)에 따르면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33억4천5백만원(25%) 증가한 1백67억1천6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 예산은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35억8천9백만원(51.3%) 증가한 1백5억8천5백만원

이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전부의치의 단가는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업량도 1만 약에서 5400 약으로 절반정도로 줄었다. 부분의치는 단가가 96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업량은 올해 8천 약에서 1만3600 약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 원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됐으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7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부의치에서 15만원, 부분의치가 24만원 인상되는 등 8년만에 인상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8월 25일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사업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1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30% 이상 올랐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예산을 올리기 위해 정부관계자를 설득하느라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노력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News & News

“보험청구 제대로 알면 수입 늘어” 보험위원회, 올바른 청구 교육지원팀 시연회

“보험청구, 치과의사가 제대로 알기만 해도 10% 늘릴 수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보험의 중요성과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올바른 청구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난 8월 22일 은평구 보건소에서 은평구 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구 교육지원팀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재야 보험 고수로 알려진 황성연 원장(보험위원회 위원)이 연자로 참석해 치과의사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행할 수 있는 보험 청구 노하우에 대해 강의하면서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청구를 하면 보험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연 위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근관치료를 위주로 한 보험 청구에 대해 에너지있게 강의했으며, 쉬는 시간에는 강의에 참석한 원장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황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차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된다 ▲진료내용과 청구내용을 일치시키자 ▲적절한 상병명을 선택하자 ▲허위·부당청구는 하지 말자 ▲원장이 많이 알아야 청구가 제대로 된다 ▲심평원 직원은 적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다 ▲조정내역은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의 기본 사항을 역설했다. 은평구 치과의사회 보험이사인 이재운 이사는 “치과의사들 200여명 정도가 참석할 줄 알았는데 배 이상이 참석해 놀랐다”며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보험을 알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보험에 맞는 정확한 진료를 하고, 정확한 차팅과 정확한 청구를 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의료계에서 치과의 보험 청구액이 더 줄어들게 되면 미래의 우리 후배들은 개원을 상상조차 못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한 원장은 “보험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원장들도 잘 알아야 하는데 많이 공감했고 강연의 내용도 많이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강연 내용 중에 다소 무리가 되는 진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도 있었다. 개원의 입장에서 환자마다 다른 종류의 재료와 진료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 치협 차원에서 이런 점이 개선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보험 청구를 직원이 하다 보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치과 보험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각이 됐다”고 밝혔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이번 시연회에 예상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줄지 않고 강연을 들어 이제는 임플란트를 대신할 블루오션이 치과보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향후 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격적으로 보험청구와 관련된 강의를 제공할 것이다. 관심이 있는 지부의 경우 협회 보험위원회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News
& News

2008년 치협미션비전선포 그랜드 워크숍 치과계 중·장기 청사진 제시, 오피니언리더 350여명 참석

치과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치협이 다년간 소통을 위한 치과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치협이 치과계의 미션과 비전을 선언하고 치과계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2008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이 지난 8월 30일, 31일 양일간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치협 고문,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직원을 비롯 지부 임·직원 및 분회장, 치대학장 및 병원장, 분과회장 등 치과계 주요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특히 협회는 이번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며 향후 이를 전심전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한편 주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치협이 제시한 미션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이며 비전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다 ▲국민구강보건정책을 선도한다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전문단체가 된다 등 총 3가지가 선포됐다.

권호근 치협 기획이사는 이날 '치협 장기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이번엔 공개된 미션과 비전을 제작하게 된 배경 및 이와 연계된 치협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 "치과사들의 권익과 의도 양양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치과사들의 전문가적 삶의 동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국가 구강보건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

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의 주제발제 및 토의 순서에서는 ▲치과의료 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박영섭 치무이사) ▲치과의료계 내부역량 강화 방안-임원 선출 개선방안(이상복 홍보이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 방안(조성욱 법제이사·김철환 수련고시이사) ▲치과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마경화 상근보험이사·이석초 보험이사)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처 방안(권호근 기획이사) ▲치과의료계 리더 및 정책 전문인력 양성 방안(김홍석 대외협력이사) 등 현재 치과계 최대 현안 6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각 분야 주제 토론에 참여한 리더들은 건설적인 대안에는 격려를,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제언과 합리적 조언을 각각 전달하는 등 각 팀별로 '피드백' 중심의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제에서 취합된 의견과 발표내용은 31일 오전 종합토의 시간에 주제별로 보고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은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치과계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치과계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이번 2008 그랜드워크숍이 치과계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
& News

치협 홈페이지 '덴탈스터디' 아시나오 학술 관련자로 회원들에게 제공, 영어·중국어 등 여학 강좌도

치협 홈페이지 내에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학술 및 교육 강연 콘텐츠가 포함된 메뉴가 선보였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영채·이하 정통위)는 회원들이 다양한 학술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덴탈스터디' 메뉴를 개발했다. 덴탈스터디 메뉴에는 기존 IT 교육 콘텐츠 외에 치과 관련 동영상 및 학술 자료, 외국어 강좌 등이 추가 됐다. 1년에 2만원만 납입하면 영어, 주재현의 JFKN 메디칼, 심심생활 중국어 등 어학 강좌 및 최신 IT 강좌 등 74종의 모든 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또 재테크 정보 서비스, E-Book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으로 2007 EAO 유럽학회 내용을 수록, E-Book을 통해 회원들이 웹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협 정통위는 향후 덴탈스터디 진행 경과를 보면서 별도의 전문 치과 관련 교육 사이트로 확대 개편도 추진할 뿐 아니라 치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관련 메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할 방침이다.

덴탈스터디 메뉴는 치협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배너 'Dental study'를 클릭하면 만나볼 수 있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치협 정통위는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학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면서 "덴탈스터디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메뉴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